

揀擇服飾考

—惠景宮 洪氏를 中心으로—

金 正 玉

圓光大學校 衣裳學科

A Study on Costume of Gan Tack

—in case of Hyaegyungung·Hong—

Jung Ock, Kim

Dept. of Clothing, Won Kwang University

Abstract

Gan Tack is meetings for marriage in Royal Families only.

There are three selection courses before the final decision of one person, and it done with a view to finding the best person in the country.

On the history of costume, it was greatly changed in Yungjo's period.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costumes of king Yungjo, Jungsungwanghu who is the consort of Yungjo, Inwonwanghu who is the consort of the late king, Sunhigung who is a seraglio of Yungjo, Ongjus who are King's daughters by seraglios, Sanggungs who are court ladies, Yumo who is a wet nurse, and etc., for Gan Tack with Hyaegyungung·Hong who is chosen the consort of Prince, and research the Dresses, which are Jugori, Chima, Dangui, Gonryongpo, and Wonsam.

The girls who attend Gan Tack dress up Jugori whose color is yellow, Chima whose color is red, and Dangui whose color is green. King wears in Gonryongpo, the Consorts in Wonsam, and the court ladies and Ongjus in Dangui, of course, there are differences of the colors and ornaments on the ranks.

Finally, I hope this thesis will be of great help to the costume of historical dramas.

I. 緒 論

王室의 婚禮는 嘉禮든 吉禮든 간에 揀擇으로서 결정한다. 定婚에 앞서 三次에 걸친 揀擇의 형식을 취하는 데 널리 만친하의 미와 덕을 갖춘 閨秀, 駙馬의 경우는 英才를 선출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먼저 대궐 옷전의 傳敎가 있으면 禮帙에서 禁婚令을 내린다. 이 禁婚令은 初揀擇이 지나면 그 選에서 빠진 處子와 함께 一般도 다 풀리게 되는데, 대개 연령의 制約은 世子 嘉禮일 경우 同甲서 부더 二, 三世 위까지의 경우가 보통이었다. 單子 마감일이 되면 禮

帙은 이를 모아 捧納하고 揀擇日字를 擇入하라는 傳敎를 받아 日官이 擇日하여 올리면 三揀擇 日字에 대한 정식 傳敎가 내리면서 同日로 嘉禮廳(王子女의 경우는 吉禮廳)의 설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英祖代에는 두 世子와 일곱 翁主, 그리고 후에 正祖 임금에 되신 世孫의 嘉禮를 치루었고 英祖 자신도 繼妃를 맞아들이기 위한 揀擇이 있었다. 또한 英祖時代에는 우리 服飾史上 많은 변화가 있었다. 服飾形態에 있어서도 52年 재위 기간중 初期와 後期에 다소 변화가 있으나, 本稿에서는 英祖 19年(1743年) 思悼世子의 嬪으로 揀擇된 惠慶宮 洪氏를 中心으로 揀擇禮의 服飾을 推定하고 문헌과 유물을 통하여 당시의 服飾形態를 考察하였다.

II. 揀擇節次 및 服飾

1. 揀擇節次

王家婚娶에 앞서 먼저 禁婚令을 내렸는데, 宗室의 딸과 李氏姓의 딸, 寡婦의 딸 및 庶孽 등 下賤者는 禁婚중에 넣지 않았다.²⁾

全國에서 處女單子를 받아오아 날짜를 정하여 揀擇을 시작한다. 單子를 낸 처녀들은 똑같은 옷차림을 하며 치마 앞에는 四代祖를 例記한 牌를 달고 手母(또는 乳母)를 뒤따르게 하여 四人僑로 入宮한다. 들어와서 手母의 도움을 받아 다시 粉세수하여 화장을 고치고 넓은 방에 한데 모여 앉아 있으면 낮것이라 하여 간단한 음식이 나오는데 이것을 먹고나면 다른 殿閣으로 옮겨 선을 보게 된다. 마루가 좁으므로 補階라 하여 임시로 널판을 붙이고 자리를 가는데, 이 위에 나란히 서면 大王大妃, 王大妃를 비롯한 여러 妃, 嬪, 尙宮들, 宗室 婦人들이 나와 親히 보게 된다. 이 경우 신랑은 선보기에 참여치 않는 것이 禮였다. 이 선보기가 끝나면 緬湯, 신선로, 花菜, 김치 등을 차린 緬床이 나오고 이것을 먹으면 그날의 일과는 끝으로 먼저 들어왔던 문을 통해 歸家한다.¹⁾

初揀, 再揀, 三揀이 모두 節次는 비슷하며 揀擇에 政治性이 내포되므로 이미 單子로써 內定이 된 具수는 各별한 대우를 받는다. 「한중록」의 내용으로 보면 洪氏는 初揀 때부터 英祖와 貞聖王后의 사랑을 받았고 宣禮宮(思悼世子の 生母)은 初揀擇 補階에는 오르지 않았으며 仁元王后(大妃)는 三揀때 처음으로 보였다고 한다.

再揀에서 首望에 들면 歸路에 六人僑를 타고 大殿別監 등 수십명의 호송을 받으며 歸家하는데 여기에 글 婢子까지 따르게 되고, 三揀에서 完定되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곧장 別宮으로 向하여 嘉禮때까지 필요한 교양과 예의범절, 언어 등을 익히게 된다.

2. 服飾

嘉禮都監儀軌에는 揀擇때의 服飾이 明示 되어있지 않으므로 여러 문헌을 참고로 하여 주요 人物들의 服飾을 다음과 같이 推定하여 본다.

가. 初揀擇

(1) 洪氏 및 單子낸 처녀들은 松花色 저고리, 다홍 치마, 草綠 민唐衣로 推定한다.

노랑 삼회장 저고리에 다홍 치마는 당시 士大夫家の 正裝으로 미혼녀의 平常禮服이었다. 士女들이므로 치마에는 女字와 花紋의 스란단을 달고, 王族이 아니면

唐衣에 金箔을 하지 못하므로 민唐衣를 입는다. 初揀 때에는 얼굴에 분은 바르되 成赤(이마를 뽀꼬 연지 끈지를 찍고 머리에 首飾까지 갖추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였다.¹⁾

(2) 英祖는 大紅緞 圓領의 袞龍袍를 입고 翼善冠을 썼을 것으로 推定한다. 「尙方定例」를 보면 袞龍袍는 陵幸·親臨·閱武 親臨慕華武才·親行北漢·迎勅舉動·進宴時와 王世子 册禮·冠禮時 등 모든 別例行事에 適用되고 있다. 揀擇日은 宮中에서는 경사날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袞龍袍는 王의 常服이나 冕服은 祭服이고 朝服인 絳紗袍는 國慶日 같은 큰 경사때에 입으므로 揀擇日의 王服은 袞龍袍에 翼善冠을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의하면 이때의 王의 袞龍袍는 大紅緞으로, 金絲로 수놓은 五爪龍의 補를 달았고 金箔한 紅緞에 옥을 붙인 玉帶를 띠었다³⁾

(3) 貞聖王后는 草綠緞金圓衫, 藍스란 치마, 紫의 스란 옷치마로 推定한다.

圓衫의 色이 계급에 따라 黃, 紅, 紫的, 草綠으로 나뉘어진 것은 朝鮮王朝末 高宗 光武元年 이후의 일로 그 以前에는 주로 草綠圓衫이었다.⁴⁾ 方形의 雙鳳紋補를 부착하고 中三作 노리개를 차며 龍紋의 스란 치마와 큰머리를 七寶로 장식한다. 紫의 色 치마는 王妃란 이 입을 수 있었다.

(4) 尙宮들은 草綠 민唐衣, 紅치마, 藍옷치마로 推定한다.

內人들 中에서도 저밀內人만이 唐衣를 입을 수 있었는데 속에 남치마, 거죽에 다홍치마를 입었다.⁵⁾

(5) 手母(또는 乳母)는 치마·저고리에 장옷(유록색 또는 곤색)으로 推定한다.

庶民層 婦女子와 女婢의 저고리 모양은 양반집 婦女와 같으나 회장을 달지 못하였고 치마는 길이가 짧고 폭이 좁았다. 장옷은 庶民婦女의 外出用쓰개로 두루 다기와 그 형태가 비슷한데, 內外가 심하였던 당시 外出時에 內外를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는데 쓰던 것이다. 이때는 英祖의 髻髻禁止令 以前으로 尊婢上下를 가리지 않고 얹은머리가 유행하던 때이므로 手母도 제 머리로, 또는 작은 다래를 드러 얹은 머리를 하였을 것이다.

나. 再揀擇

(1) 洪氏 및 처녀들의 服飾은 初揀擇 때와 같게 推定하며 成赤이 가능하였다.

(2) 英祖, 貞聖王后는 初揀擇때와 같다.

(3) 宣禮宮은 草綠緞金(또는 付金) 圓衫, 藍스란 치마, 紅스란 옷치마로 推定한다.

中三作 노리개를 차고 後宮이므로 봉황문의 스란단을 달며 옷치마는 紅色을 입는데 큰머리 七寶에 역시 方形의 補를 단다.

(4) 翁主들은 草綠織金(또는 付金) 唐衣, 藍스란 치마 紅스란 옷치마로 推定한다.

제24代 憲宗 後宮 慶嬪 金氏의 「四節服色自藏要覽」에 의하면 草綠唐衣에는 赤色 비단 옷치마를 입는 것이 規則이라고 하였다. 李衡祥(孝宗 4年—英祖 9年)의 「瓶齋集」에 於汝美·草綠唐衣로써 外命婦 및 士女의 進見上服으로 한다.⁶⁾ 하였으니 出家한 翁主들의 머리 모양은 於汝美로 생각할 수 있다. 唐衣에는 中三作 노리개와 인형의 補를 달며 스란단의 紋樣은 花紋이다.

(5) 宮立婢子는 鵝青色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이 여인들은 조그만 朱漆函속에 편지를 넣고 藍色보자기에 싸들고 다녔다. 엷은머리를 하며 하역婢子이므로 쓰개는 하지 않는다.

다. 三揀擇

(1) 洪氏 및 처녀들의 服飾은 再揀擇 때와 같다.

服色은 初揀, 再揀, 三揀이 모두 같으나 옷감이 고급스러운 것임을 「한중록」의 다음내용으로 알 수 있다.

“三揀 미쳐… 貞聖王后께서 하여 내리신 衣服이니 草綠枕榴緞 唐저고리 松花色 葡萄紋緞 저고리 보라 桃榴緞 저고리 一作이요, 眞紅 五葫蘆 紋緞치마와 紵布 적삼이리라.”⁷⁾

이로써 唐衣 밑에는 노랑(삼희장) 저고리, 보라(또는 분홍임) 속저고리, 속적삼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宮中에서는 한겨울이라도 속적삼은 모시를 입었다.

(2) 英祖, 貞聖王后, 宣禧宮, 尙宮, 翁主들의 服飾은 初揀, 再揀때와 같다.

(3) 仁元王后(大妃)는 草綠圓衫, 藍치마, 紫의 옷치마로 推定한다.

王大妃는 미망인이므로 모든 服飾에 있어서 은은하고 화려하지 않은 차림을 하였을 것이다. 雙鳳紋 補를 달며 中三作 노리개를 차고 큰머리를 하되 그 首飾도 수수하게 한다.

(4) 三揀後 洪氏 別宮行때의 服飾은 草綠織金圓衫, 松花色 저고리, 분홍 속저고리, 다홍 공단 鳳帶, 藍스란 옷치마, 다홍치마이다.¹⁾

三揀때 까지만도 옷옷으로 입던 草綠唐衣가 圓衫으로 바뀌어졌으며 金箔한 자주 땁기를 늘이고 갖은 首飾을 다한 七寶 족두리를 쓴다. 大三作 노리개를 차고 스란단의 紋樣은 文字와 花紋을 사용한다.

III. 服飾考證

1. 치마·저고리

李德懋(英祖 17—正祖 17)의 「靑莊館全書」에, “지금의 衣服이 上衣는 매우 짧고 좁으며 下裳은 매우 길고 넓으니 服妖이다. 削衿之衫과 撐幅之裙도 服妖이다. … 生死老少 몸집의 大小를 막론하고 옷을 좁지않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소매가 너무 좁아 옷을 입으려 할때 매우 어려우며 팔꿈치를 한번 구부리면 바느질이 뜰어지고 잠깐 입어서도 어깨가 편하지 못하며 벗기가 어려워 소매를 뜰어서 벗으니 가히 요사하다.”

「時世之服上衣太短窄下裳太長博服妖也削衿之衫撐幅之裙服妖也當聞… 生死老少體大小不同則其衣之不窄可知也今則不然試着新衣窄袖甚難一屈時而縫綻甚至隨着逾時臂氣不周脹大難脫削袖而救之何其妖也」⁸⁾

李瀆(숙종 7~영조39)도 그의 「星湖僿說」에서, “婦女의 짧은 저고리와 소매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貴賤이 通用하니 매우 한심한 노릇이다 더구나 여름 흘적삼은 위로 돌돌 걸어말려서 치마허리도 감추지 못하니 더욱 怪悖하다”⁹⁾ 또 「增補文獻備考」에도, “우리나라 부인복은 옷저고리와 치마가 이어지지 않고 저고리가 짧아서 허리를 가리지 못한다”고 했다.

「我國夫人之服衣裳不連而衣短不掩腰…」¹⁰⁾

당시의 風俗畫家 申潤福(英祖 39~?)의 그림(圖 1)과 思悼世子와 惠慶宮洪氏 所生인 淸衍郡主(英祖 30~純祖21)의 遺物 저고리(圖 2, 圖 3)를 살펴보면, 고대가 좁고 당코깃을 달았으며 끝동과 깃나비는 저고리 크기에 비해 넓은 편이고 결막이와 고름은 좁고 짧았으며 회장색은 주로 검은 자주색이었음을 알수있다.¹¹⁾ 그러므로 이때의 저고리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뒷길이가 25~30cm 정도로 생각되며(圖 2, 3참조) 품과 진동, 소매통이 좁은 직배래로서 몸에 꼭 끼어 맞게 입었음을 알수 있다. 또 깃과 끝동이 넓었으며 고름은 짧고 좁아서 美意識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이 더 강함을 나타내 준다.

치마는 朝鮮時代 歷代를 통하여 별로 변천이 없었는데, 길이가 길고 폭이 넓었으며 흰색으로 허리와 끈을 넓고 길게 달았고 宮中에서는 尙宮들의 겹치마까지도 보통 비단폭으로 네폭, 명주같이 좁은 것으로는 12폭이라는 것이 민간과 다르다. 王妃의 儀式用 치마는 자주색인데 보통 때는 다홍색도 같이 입으며 後室이어서 內外 연명차가 심할때는 남치마를 입고 홀마마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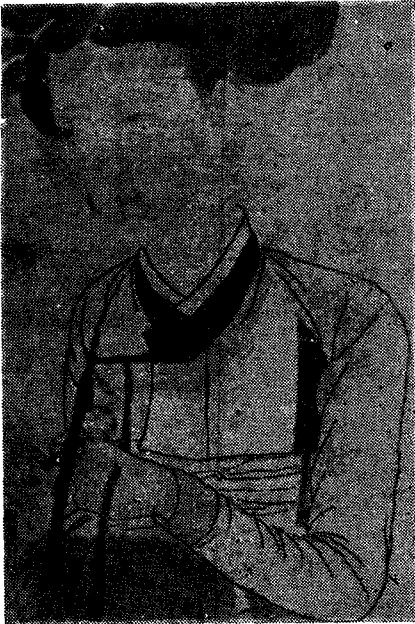


圖 1. 美人圖, 蕙園 申潤福, 「風俗畫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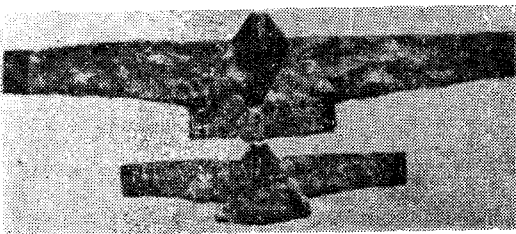


圖 2. 清衍郡主 壽衣저고리, 石宙善, 「韓國服飾史」, p. 490.

註) 清衍郡主 遺物저고리중 위의 것은 가장 큰 저고리이고 아래것은 가장 작은저고리임.

* 큰 저고리의 실측치(石宙善氏 제공)
길이 : 31cm 衣料 : 貢緞
화장 : 77cm 폭 : 4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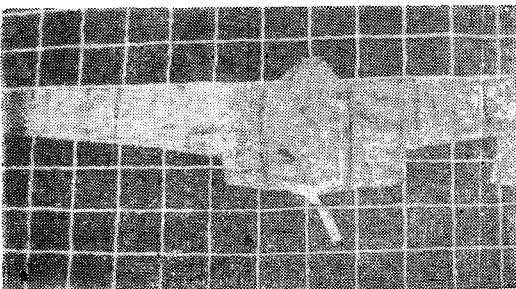


圖 3. 清衍郡主 壽衣저고리
실물 6호 22(사진제공 : 李京子氏)

註) 사각형 하나의 크기는 가로,세로 10cm씩

는 화려한 것을 멀리하고 옷도 純色을 입어 玉色 민저고리에 남치마를 입는다.¹⁾ 王子君夫人과 公主·翁主 등 王族은 紅치마를 입을 수 있으며 上下를 막론하고 玉色 회장저고리 (계급에 따라 삼회장과 반회장의 차이는 있음), 남치마는 宮中의 服色이었다.

스란 치마는 스란단을 한층만 붙인 것으로 길이가 30cm정도 땅에 끌렸으며 스란단의 넓이는 대개 15~20cm정도인데 金箔을 찍는 付金보다 織造할때 金絲로 무늬를 넣어서 짜는 織金이 보다 格이 높은 것이었다. 스란단 무늬는 계급에 따라서 王妃는 龍紋, 公主·翁主는 鳳凰紋, 士女(士大夫 婦女)는 文字와 花紋을 사용하였다.

註) 石宙善氏 소장 清衍郡主 壽衣치마(정리번호:0474)
衣料 : 貢緞
길이 : 115cm
폭 : 335cm(발굴 당시부터 치마허리는 없었음)

2. 唐衣

唐衣는 신라 太宗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李朝時代까지 傳承된 婦女服의 하나로 中國 唐나라의 女官들이 常時 禮服으로 입었던 옷이다. 물론 中國의 唐衣는 우리나라의 것과는 다른데, 그 당시 唐나라의 비단이 좋았기 때문에 그 비단으로 당의를 만들었으므로 唐나라 「唐」字를 써서 唐衣라고 불렀다.⁵⁾ 한다.

唐衣를 일명 唐저고리라고도 하며 앞 뒷길 양끝이 십귀같이 뾰족히 나온 옷옷으로 宋文欽의 「閒靜堂集」을 보면, “所謂 長背子는 長袖이고 兩裾가 서로 덮이고 兩腋을 꿰매지 않은 것으로 요즈음(英祖代) 男子들의 長襦와 비슷한 것이다. 조금 짧으면 短背子가 되니 즉 唐衣다.”¹²⁾ 또 「四禮便覽」 冠禮條에, “衫子는 俗稱 唐衣라고 하며 길이는 무릎까지 닿고 소매는 좁다. 女子의 常服이다”¹³⁾ 라고 하여 唐衣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서 보면 唐衣는 여자의 常服에 속해있던 것인데 朝鮮王朝末부터 小禮服으로 着用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즉, 五月 단오부터 秋夕전까지는 흰색 홀당의(당적삼)을 입었다는 것을 문헌(順和宮帖草; 憲宗後宮 慶嬪 光山金氏)에서나 遺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중록」에서 世子嬪 揀擇은 음력 九月 二十八日에 시작되었으므로 草綠唐衣를 着用하였을 것이니, 草綠色 비단 거죽에 多紅色 안을 받치고 자주색 길고름과 안고름, 소매끝에는 창호지 속을 넣은 흰 거들지를 달았을 것이고 “公主나 翁主는 7세부터 唐衣를 입으며 公主·翁主·大君·君의 딸과 며느리도 4代까지는 金箔인 것을 입고 그 후는 못입는다.”⁶⁾ 하였으니 公主

의 5대孫인 洪氏도 揀擇時 민唐衣를 입었을 것이다.

宮中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들(宗親夫人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唐衣를 입었으며 다만 名節이나 儀式때와 같이 큰머리 七寶는 하지 않았다. “內人들 中에서는 지밀內人만 唐衣를 입을 수 있으며 婢子나 무수리같은 內人들은 嘉禮때 행렬 설때나 한번 입는데 이것은 검은 명주에 밤물색(검정하고 붉은색이 나는 것)을 들이고 안은 다홍 명주로 된 겹唐衣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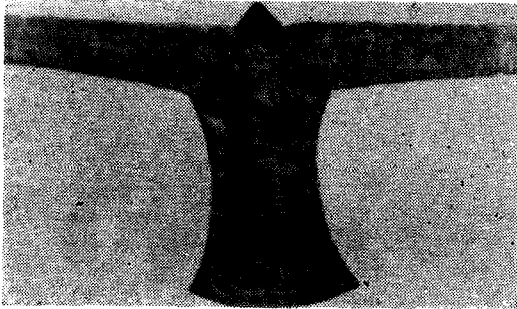


圖 4. 淸衍郡主 壽衣 唐衣
石宙善, 「韓國服飾史」, p. 490.
註) 실측치(石宙善氏 제공)
길이 : 58cm 衣料 : 雲紋緞
화장 : 52cm 품 : 30cm

당시의 唐衣遺物로는 淸衍郡主의 壽衣 唐衣 (圖4)가 남아있다.

3. 袞龍袍

袞龍袍는 常時 政事를 볼 때나 朝參儀, 常參儀, 詔勅書迎接時, 文·武科殿試儀 및 生員放榜儀 등의 儀式時 着用 하였던 것으로 다른 王服과는 달리 儀禮의 으로 賜與되었던 것은 아니며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는 世宗朝에 처음으로 頒賜되었음을 實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國朝續五禮儀補序例」에 의하면, 國王의 袞龍袍(圖 6)는 冬節에는 大紅緞 圓領이고 夏節에는 大紅紗로 하며 金絲로 刺繡한 五爪圓龍의 補를 左右어깨와 가슴, 등에 附着하고 玉帶(圖 10)는 紅緞으로 싸서 金箔을 하고 그위에 玉을 달았으며 신은 검정색 靴(圖 12)를 신었다.

「袍以大紅緞爲之夏用大紅紗袍前後貼金五爪圓龍補袍左右肩同

帶以雕玉爲之裏以大紅緞而金畫之

靴以黑甕子皮爲之夏用黑黍皮」¹⁵⁾

王世子는 書筵服으로 袞龍袍를 입는데 黑色 圓領으로 四爪圓龍의 補가 附着되고 玉帶(圖 11)는 黑緞으로 싸서 金箔하며 靴는 殿下와 같다. 그러나 冠禮前에는

常時 黑袞龍袍를 着用하고 水精帶를 使用한다고 하였다.

「袍以黑緞爲之夏用黑紗制同殿下袍而袍前後貼金四爪圓龍補袍左右肩同

帶以不雕玉爲之裏以黑緞而金畫之

靴同殿下靴」¹⁶⁾

「冠禮前...常時黑袞龍袍水精帶...」¹⁷⁾

王世孫은 講書服으로 袞龍袍(圖 8)를 着用하였는데 王世子와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黑緞, 여름에는 黑紗로 하였으나 三爪方龍의 補를 金絲로 刺繡한 것을 달았으며 帶는 水精帶로 靑緞으로 싸서 金箔하였고 靴는 王世子와 같았다.

「袍以黑緞爲之夏用黑紗制同王世子袍而惟袍前後貼金三爪方龍補袍左右肩無貼

帶以水精爲之不雕同王世子玉帶裏以靑緞而金畫之

靴同王世子靴」¹⁸⁾

形態에 있어서는 朝鮮王朝 初期와 後期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英祖御眞(圖 5)과 「續五禮儀補序例」(圖 6, 圖 8)를 보면 白色 裏衣의 옷깃이 드러나 보이며 넓은 두리소매에 무는 뒤로 접어서 고정시키고 옷고름으로 여미게 되어 있다.¹⁹⁾

袞龍袍에는 翼善冠(圖 7)을 쓰는데, 唐書 車服志를 보면 後周때 幘頭를 着用하던 것을 唐太宗이 改造하여 制定한 것이라고 한다. 冠의 모양은 紗帽와 비슷하던데 毛羅로 冠을 싸고 後頭에는 兩角이 끈게 꿰혀 있다.

「冠以毛羅裏之兩大角兩小角貼後向上」¹⁵⁾

王世子는 冠禮前에는 空頂幘(圖 9)을 쓰나 冠禮後에



圖 5. 英祖御眞
石宙善, 「韓國服飾史」, p.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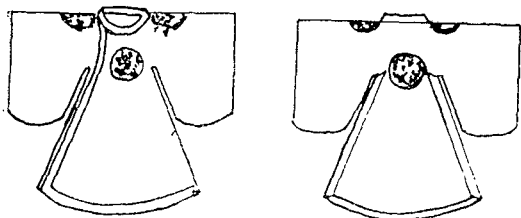


圖 6. 殿下 衰龍袍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圖 7. 翼善冠
「國朝續五禮儀補序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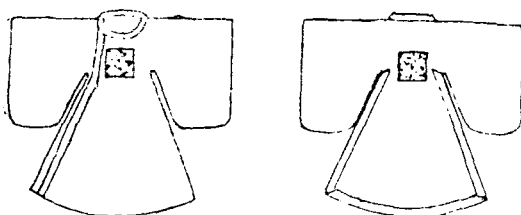


圖 8. 世孫 衰龍袍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圖 9. 空頂幘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圖 10. 殿下 玉帶
「國朝續五禮儀補序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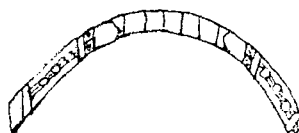


圖 11. 世子 玉帶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圖 12. 靴
「國朝續五禮儀補序例」

는 殿下의 冠과 同一한 翼善冠을 着用하였다.

4. 圓衫

圓衫은 원래 團衫으로, 中國으로부터의 請賜冠服이며 常服으로 賜與된 것인데 宮中에서는 妃·嬪의 小禮服이었고 內外命婦의 大禮服이었으며 庶民層에서는 婚禮服으로 着用하였다.

「四禮便覽」祭條에 보면, “大衣는 色紬로서 만들며 그 제도는 속칭 唐衣와 같고 넓고 크다. 길이는 무릎 까지 오고 소매가 커서 그 길이가 2尺 2寸이며 둥글다 一名 大袖 또는 圓衫이라고 하며 즉, 五禮儀의 本國 長衫이라고 하여 圓衫은 大衣와 大袖 또는 長衫과 같은 것으로 되어있다.”

「大衣裁用色紬制如俗唐衣寬大長至膝但袖大袖長二尺二寸(周天) 圓袂一名大袖或稱圓衫(即五禮儀本國長衫)」²⁰⁾

李衡祥의 「瓶窩集」에, “東俗에 舉頭美·草綠圓衫·珠履·裙으로서 內命婦의 上服으로 하고 女帽·草綠圓衫·珠履·裙으로서 女裝上服으로 하며…舉頭美·紅長

衫·珠履·裙으로서 婚女上服으로 하고 蓋頭·圓衫으로서 新婦禮時 乳媪의 上服으로 한다”²¹⁾고 하였는데 仁祖 5年 昭顯世子 嘉禮時와 英祖 5年 世子(眞宗) 嘉禮時, 英祖 38年 王世孫(正祖) 嘉禮時 嘉禮都監儀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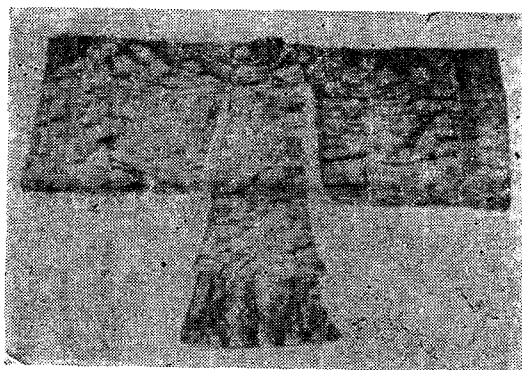


圖 13. 清衍郡主 壽衣 圓衫
石宙善, 「韓國服飾史」 p. 490.

草綠圓衫이 포함되어 있다.

帶의 길이는 4~5m, 나비는 4~5cm의 것으로 뒤에서 매고 길게 늘어뜨리는데 階級에 따라 金織 또는 金箔을 하였다.

補 역시 階級에 따라서 紋樣이 다른데 圓衫과 同一한 色의 雲紋織에 紋樣을 金絲로 刺繡하였다.

圓衫의 首飾으로는 宮中에서 큰머리(臣頭味)와 어머머리(於由味)를 하였고 班家에서 堂上官의 夫人도 이와 같은 首飾을 할 수 있었으며 儀式이나 婚禮時에 使用하였다. 그리고 簇頭里, 花冠으로도 首飾을 하였는데 대렬에서는 儀式이나 慶事가 있을때, 班家에서는 婚禮時나 慶事時에 禮服과 併用하였는데 일반적으로 圓衫에는 簇頭里를 使用하고, 활옷과 唐衣에는 花冠을 使用하였다.

IV. 結 論

이상으로 揀擇時 그 身分에 따르는 服飾을 推定하고 英祖朝의 服飾形態로서 考察하여 보았다. 그러나 揀擇의 이면에는 다분히 政治性이 내포되어 이미 單子로서 內定된 規수는 初揀 때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고 하였거니와, 「한증록」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뚜렷이 알아볼 수 있다.

嘉禮都監儀軌에는 揀擇때의 服飾이 明示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러 문헌을 참고로 하여 推定한 主要 人物들의 服飾은 다음과 같다.

1. 初揀擇

(1) 洪氏 및 單子넌 처녀들...松花色 저고리, 다홍치마, 草綠 민唐衣

(2) 英祖...大紅色 袞龍袍, 翼善冠

(3) 貞聖王后...草綠織金圓衫, 藍스란치마, 紫의스란 옷치마

(4) 尙宮들...草綠 민唐衣, 紅치마, 藍옷치마

(5) 手母(또는 乳母)...치마, 저고리, 장옷(유록색 또는 곤색)

2. 再揀擇

(1) 洪氏 및 처녀들...初揀때와 같되 成赤이 가능함.

(2) 英祖, 貞聖王后...初揀때와 같음

(3) 宣禧宮...草綠織金(또는 付金)圓衫, 藍스란 치마 紅스란 옷치마

(4) 翁主들...草綠織金(또는 付金)唐衣, 藍스란 치마 紅스란 옷치마

(5) 글월 婢子...鴉青色 치마·저고리

3. 三揀擇

(1) 洪氏 및 처녀들...再揀때와 같음.

(2) 英祖, 貞聖王后, 宣禧宮, 尙宮들, 翁主들...初揀 再揀때와 같음.

(3) 仁元王后(大妃)...草綠圓衫, 藍치마, 紫의옷치마

(4) 三揀後 洪氏 別宮行때...草綠織金圓衫, 松花色 저고리, 분홍 속저고리, 다홍 풍단鳳帶, 藍스란 옷치마, 다홍치마

끝으로 本論文의 결정적인 影響력을 받고있는 오늘날, 本論文이 揀擇場面の 映像化辨 아니라 이 時代를 배경으로 하는 史劇物전반에 걸쳐 衣裳을 마련하는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상의 것을 現世人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는데에 적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간망하는 바이다.

引 用 文 獻

1. 金用淑,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 淑大 出版部, 344-346, (1970)
2. 李能和, 朝鮮女俗考, 東洋書院, 89, (1927)
3.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卷之二, 嘉禮, 殿下視事服圖說
4. 高光林, 朝鮮時代に 있어서의 女子禮服에 關한 研究 (1), 인천교대 논문집, 11, 84, (1976)
5. 鄭福南, 唐衣에 대한 考察, 농업연구소報(진주농대), 6(5), 115, (1972)
6. 柳喜卿, 李朝末 女子禮服에 대한 小考, 대한가정학회지, 9, 1(5), 4, (1971)
7. 한등록, 民衆書館, 25, (1976)
8.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之二十, 士小節下卷
9. 李 滄, 星湖僿說類選, 上, 卷三, 人事門婦人服
10. 增補文獻備考, 卷之八十, 禮考二十七, 章服二, 十七張
11. 朴京子, 蕙園風俗畫에서 본 우리 옷의 멋, 연구논문집(성신여사대), 3, 110, (1970)
12. 宋文欽, 閑靜堂集, 卷七, 雜著
13. 李 粹, 四禮便覽, 冠禮條
14. 鄭福男, 前揭書, 117, (1972)(尹伯榮 女史 證言)
15.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卷之二, 嘉禮, 殿下視事服圖說
16.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卷之二, 嘉禮, 王世子書筵服制度
17.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卷之二, 嘉禮, 王世子冠禮前幘服制度

(8)

韓國衣類學會誌

18.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卷之二, 嘉禮, 王世孫講書服
制度
19. 金美子, 袞龍袍의 形態에 대한 研究, 논문집(서울

- 여대), 7, 298, (1978)
20. 李緯, 四禮便覽, 卷之八, 察條